

누가복음 16-17  
Tape #C2536  
By Chuck Smith

Jesus speaks on two unpleasant subjects, to a lot of people. Not unpleasant to me, but to a lot of people. Talks about hell. That's not unpleasant to me, not worried about it at all.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가지를 말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에게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그것이 불쾌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Now Jesus is at a supper with the Pharisees; it's on the Sabbath day. And this particular section that we are now in is still in that supper that Jesus was invited to, beginning the fourteenth chapter, where the Pharisees invited Him to the house, set Him up with fellow with dropsy, and so this whole interchange of thought and all is going on there. At times He is addressing the Pharisees, at times He is addressing His disciples. And at this point, beginning of the sixteenth chapter, He is now addressing His disciples.

지금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특별한 부분은 14장에서 시작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만찬이 아직 계속 되는것입니다. 거기에 고창병이든자를 세워놓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때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And so he said also unto his disciples,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ich had a steward; and the same was accused unto him that he wasted his goods. And he called them, and said unto him, How is it that I hear this of thee? giving account of thy stewardship; for you may no longer be steward. Then the steward said within himself, What shall I do? for my lord is taking away from me the stewardship: and I cannot dig; and I ashamed to beg. I know what I'll do, so that, when I am put out of the stewardship, they will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So he called every one of his lord's debtors unto him, and said un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lord?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And he said unto him, Take thy bill,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And he said un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Now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because he had done wisely: for the children of this world or in their generation wiser than the children of light. And I say unto you, Make to yourselves friends by th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that, when ye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everlasting habitations (16:1-9).*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알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뇨?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뇨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6:1-9).

So Jesus here gives a parable, it's to His disciples, and it's a parable of stewardship.

Now, the thing to notice, first of all, about his steward was that everything he possessed belonged to his master. And in his waste he was actually wasting his master's goods. In the application of this, of course, God has made us stewards and everything that we have really belongs to God. Bible says,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It all belongs to Him. Now God allows me that privilege and opportunity of overseeing that which belongs to Him. But God also holds me responsible as to what I do with it when it is under my care. So,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everything we have is our Lord's. But I am responsible to Him.

여기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것은 청지기가 소유한 모든것이 그의 주인에게 속한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상 자기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것이 그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것들을 감독할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손아귀에 있을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책임을 받았습니다.

There is another parable of the steward, and in the other parable the lord went away to a far country and left his goods in the hands of his servants. And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four, to another one. But the same ideas, the lord came and they had to give an accounting of what they had done with what was the lord's. When you see yourself as a servant of Jesus Christ, then it naturally follows that as His bond slave everything you possess actually belongs to Him. I own nothing of my own; it all is the Lord's. And this particular steward was accused of wasting his goods. And so he was called to give an account. The Bible tells us that one day every one of us are going to stand before the Lord to give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while we were in these bodies, whether good or evil.

청지계에 관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이 준것으로 그들이 행한 결과를 회계보고 해야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긴다면 그의 종으로서 소유한 모든것이 실제로 그분에게 속한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내가 소유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언제 일른지는 알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되며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때 행한 잘한것과 잘못된것을 보고해야합니다.

II Corinthians, chapter 5, Paul said that we wi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We are also told that we are going to be judged according to our works and many of the works will be burned by fire, but those that remained we will be rewarded for. So we will all one day give an account to the Lord of our stewardship, how I managed the Lord's properties. How I managed the Lord's resources that He placed at my disposal. I have that responsibility, then, of proper management whenever God places anything in my power. And so he was called to give an account.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많은것들이 불에 탈것이나 불에 타지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청지기 생활 즉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할것 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에 대한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아래 두신 모든것은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회계 보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Now this particular steward knew that he was in trouble. When the audit was made, the accounting was to be made, he knew that he was guilty of wasting his master's goods. He knew that he was going to lose his job. And so he was concerned because he felt that he was just too frail to dig ditches and he was ashamed to beg. And then he hit

upon an idea, very dishonest. In which he began to call in his master's debtors. And he began summarily to discount their obligations to his master. Now the master, in this case, was probably a landlord. And so often the landlord in renting out his property would take instead of rent some of the produce from the land. It was very common for the people to pay their rent in wheat that had been produced on the land. Or in the oil that have been produced on the land or in some of the products of the land itself. And this was a very common thing. And so the first one, he brought him in, and he said, "How much do you have to pay?" And he says, "Well, I pay a hundred measures of oil," and he says, "Here, take down, write fifty." And to the one who owed...p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Write eighty."

이 청지기는 자기가 곤경에 빠져있음을 알았습니다. 회계가 이루어졌고 그후에 감사가 있을것이고 그 후에 그가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 죄가 드러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직할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에게 아주 정직하지 않은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자들을 불러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것을 즉석에서 깎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인은 아마 땅의 주인이었던것 같습니다. 빈번히 땅 주인이 그의 땅을 빌려준 댓가로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밀로 땅을 빌린세를 내는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생산한 기름이나 또 다른 농작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번째 불러들인 사람에게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백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오십이라고 쓰라" 고 청지기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밀 백석을 빚진자에게 "팔십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Now, what he was seeking to do is to make these people obligated to him. So that when he was fired from his job, he would be able to come back to them and sponge off of them for a while because of the favors that he had granted to them in discounting their bills. As he was the steward managing his owner's affairs, he was setting himself up using this position of authority. Using this opportunity that he had to set himself up for the future. Which he knew was going to be very grim once he was fired, because he wasn't a ditch digger and he was ashamed to beg.

그가 하려고 하는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빚진것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그가 실직 될때 그가 그들의 빚진것을 깎아주는 호의를 베풀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분간 그들에게 붙어 살려는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일을 돌보는 청지기였을때 그 위치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을 위해 주선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일단 해고되면 그의 처지가 암담해질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을 파는 사람도 거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Up to this point, we can follow the story rather clearly. But at the next scripture, when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that's where the problem arises. Why would he commend the unjust steward? Why would the lord commend him? Now I can understand if the lord said, "Cast that unjust steward out. Put him in the debtors' prison until his obligations have all been taken care of." But the lord commended him. For what? Not for his actions, not for his honesty, but for his wisdom. The wisdom of using his present position to set himself up for that uncertain future that he knew was coming for him. That's what the lord was commending.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 하시는 다음 성경 말씀은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부분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 하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면 차라리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 내어라.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빚을 갚을때 까지 빚쟁이들을 감옥에 집어 넣어두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칭찬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행실이나 정직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의 위치를 사용하여 그가 아는 닥아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Now as we go to the proverbs, Solomon said, "Go to the ant, thou slugger, to you lazy bum. Learn of his ways and be wise" (Proverbs 6:6). Again, he said, "There are four things upon the earth that are exceedingly small, but exceedingly wise. And among these four things the ant, is but a feeble folk. Know that was a conies is a feeble folk. The ant lays up its meat in the summer" (Proverbs 30:25-26). The wisdom of the ant laying up its food supplies during the summer. The ant somehow knows that the weather isn't always going to be this nice. Somehow there's recorded information in that little brain of the ant, that the winter is coming it's gonna to get cold, it's gonna get rainy, and he won't be able to get out and forage for f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while it is still summer, while he can get out, to get out and to gather together all of the food that he'll need to survive during the winter season. In other words, take advantage of the present situation to prepare yourself for what you know is coming in the future.

이제 잠언으로 가서 솔로몬의 말을 살펴 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6). 또 그는 말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 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잠 30:24-26). 개미가 먹을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개미는 일기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일기가 항상 좋지는 않을것을 압니다. 여하간 개미의 작은 두뇌에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비가 오며 먹을것을 찾아 나갈수 없다고 기록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 동안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모으기 위하여 밖에 나갈수있는 여름 철에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앞으로 닥아올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십시오.

Now, this is the wisdom that was manifested by this steward. And that's why he was commended. Because he took advantage of his present situation to help set himself up for what he knew was coming in the future. That is always very wise, but it isn't wisdom that we always follow. We know that one day we are going to die. We know that when we die we can take nothing with us. We know that any treasure that we lay up in heaven we have to lay up now. We've got to take advantage of our opportunities now to lay up heavenly treasure.

이것이 이 청지기에게서 나타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 하신것입니다. 그가 현재의 형편을 이용하여 그가 아는 닥아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닥쳐올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수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지금 쌓아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보화를 쌓기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야합니다.

We know that we came into the world naked we're going out of the world naked.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it is certain we are going to take nothing out. So if I'm going to set my self up in the heavenly kingdom, I must do it now and I must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now in order set myself up for the heavenly kingdom. And this is exactly what Jesus is saying.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Make use of this filthy luker. This money that God places at your disposal, make use of it in such a way that you will be reaping eternal benefits from it. Invest it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in such a way that when you failed, when you come to the end of the road, you might be received into the everlasting habitations.

우리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않는것도 확실합니다. 만일 내가 하늘나라에 나 자신을 위해 준비 한다면 그것을 지금 해야하며 그 준비를 하기위해 현재 내가 가진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추하게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리하도록 주신것이니 그것으로 부터 영원한 이익을 거둘수 있도록 잘 활용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시되 인생의 끝장이 올때 영원히 거할곳에서 받을수 있도록 하십시오.

God, I am certain, keeps a very interesting set of books. Paul the apostle, when he was writing to the Philippians, thanked them for the gift that they sent to him. He said, "Not that I particularly needed it, bu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Philippians 4:17). Thank you for what you sent to me. I wasn't particularly in need, but I'm grateful for it because the fruit of my labor. Those people that I won to Christ will abound to your account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supported my ministry there. So money is a tremendous outlet of spiritual power if we use it right.

내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한 세트의 책을 보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때 그들이 그에게 보내준 선물로 인해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 4:17). 너희가 보내 준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특별히 필요한것도 아니지만 나의 애쓰것이 열매를 맺은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로 그곳에 있는 나의 사역을 돕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좌에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로 사용할때 영적 능력의 놀라운 출구가 됩니다.

Money can be a blessing; it can be curse. It all depends on how a person uses it. It can be the closest thing to omnipotence that man possesses but so often creates impotence. Jesus is warning here against that impotence that money often creates with a person.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so that when you fail they might receive you under the everlasting kingdoms.

돈이 축복도 될수 있지만 저주도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인간으로서 소유할수 있는 만능에 가장 가까운것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무능하게 만드는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돈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을 활용하여 망할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를 받아 드릴수 있도록 하라.

There is, to me, one interesting aspect of arriving in heaven. Something that you don't hear of much, but I expect to meet a lot of people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Who, though I have never seen them, I am responsible for their being there in the heavenly kingdom. Maybe some native from Africa when he gets to heaven will say, “Now how is it that I heard the gospel?” and God will go through the books and say, “Well, actually, that missionary that was out there was supported by Chuck Smith. So when he arrives that's the one you one to look for.” And so this fellow come up to me and say, “Hey, I want to thank you, brother. Oh I so appreciate what you did.” “Well, who are you?” “Oh man, I was a Ubangky. But you brought me the gospel.” “What do you mean I brought you the gospel? I've never been in Africa.” “Oh, well, I checked the records up here and you where the one that was supporting that missionary over there that brought me to Jesus Christ.”

하늘나라에 다다르면 내게 재미있는 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에는 전혀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는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책임 입니다. 혹시 어떤 아프리카 본토인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책을 훑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은 척 스미스가 후원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전한것이지. 자네가 찾은 사람이 저기 오는 구먼”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와서 하는 말이 “오, 형제, 감사해요, 당신이 하신것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누구요?” “오, 내 이름은 우방키 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무슨말인가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내가 기록을 조사해보니 당신이 후원한 선교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How can they believe unless they hear, how they can hear except there be a preacher? How they can preach except they'd b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that carry the gospel of peace." But that part of being sent, and that's where we can come in.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So that when you fail they might receive you into the everlasting kingdoms.

저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바,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물질을 보내는곳에서 사람들이 들어 올수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할때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받아 주실것입니다.

And now the Lord goes on in verse 10 to make the application of the parable, as He relates it now to your place in the kingdom of God, when you come in to the kingdom of God.

*If you have been faithful in least, [in these little things that God has placed at your disposal,] then you will also be faithful in much [in those great things of His kingdom]: but if you have been unjust in the least then you'll be unjust in the greater things (16:10).*

Man if you're embezzling dollars now, you'll be seeking to embezzle more later, you see. If you're unjust in the little things, if you have a bigger opportunity you're gonna be that much more unjust.

10절에서 주님은 그 비유를 응용 하도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당신의 자리와 관련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것) 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것) 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6:10).*

지금 당신이 돈을 횡령하면 후에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하려고 할것입니다. 만일 작은일에 불의하면 더 불의하게될수있는 더 큰 기회가 올것입니다.

*If therefore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mammon, then who is going to commit to your trust the true riches? (16:11)*

Now this unrighteous mammon is not true riches. Moth and rust can corrupt it. The banks can fail. There's just many ways that this unrighteous mammon can suddenly disappear. It's not true riches. The true riches are the things in the kingdom of God.



They're the eternal riches. Yet, if you've not been faithful in this unrighteous mammon, then who is gonna commit to your trust the true riches?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6:11)*

이 불의의 재물은 진짜로 부유한것이 아닙니다. 좀과 동록이 해칠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여러 길로 갑자기 사라질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재물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은 하늘 나라에 있는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당신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재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in which is another man's (16:12),*

You see, I'm a steward; whatever I have belongs to God. It's not mine. And if I'm not faithful in taking care of what belongs to God,

*then who is going to give that which is my own?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16:12-13).*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6:12)*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것의 청지기입니다. 그건 내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것을 관리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6:12-13).*

You can't serve them both. Divide in loyalty, it just won't work. You cannot have God as your god and money as your god at the same time.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Now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16:14),*

They were covetous, they loved the money.

*They heard all of these things that he was saying to his disciples: and they began to deride him (16:14).*

두 가지를 다 섬길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 집니다. 그래서 일이 안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똑 같은 신으로 섬길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6:14),*

그들은 투기하는사람들이며 돈을 사랑합니다.

And so He turned on them. Now He's talking to the Pharisees,

*And he said unto them, You are they which justify your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16:15):*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a person comes up and tries to justify before me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I say, "Hey, man, it's cool; doesn't make any difference. I'm not the one who is going to be your judge. You don't have to justify your case before me; I'm not your judge. God is the one. He knows your heart. He knows what the motive was." And the Pharisees were those who love to justify them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their hearts.

그리고는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16:15):*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나에게 와서 그가 행한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애씁니다, "여보게, 그거 참 훌륭해; 그건 상관 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경우를 내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이시며 당신의 속 마음을 아시고 또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신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for that which is highly esteemed among men (16:15),*

Talking of the Pharisees who were highly esteemed by men, He says,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16:15).*

Men may highly esteem you, but as far as God is concerned you're an abomination.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and since that time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 man presseth into it (16:16).*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16:15)*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15).*

사람들이 당신을 높일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혐오의 대상 일 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16).*

So up until the time of John you were under the law you were under the prophets. Now the kingdom of God, John came preaching what? The kingdom of God. Saying,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And Jesus preached of the kingdom of God, and so, since the coming of John, the kingdom of God has been preached. And every man must press into it. The word *press* is an intense word in the Greek. It is *agonizo*, must agonize into it.

요한의 시대까지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 아래 있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전파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요한이 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침입하다, 또는 재촉해서 들어가다 (Press)" 라는 헬라 단어는 집중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고니조 (*Agonizo*) 라는 단어로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than one tittle of the law to fail*  
(16:17).

Now, He said, you know, the law was until John. Now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but heaven and earth will pass but not one little part of the law is going to fail.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16:17).

주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으려니와 율법의 일점 일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Now evidently there was a running battle between the Pharisees and Jesus over the issue of divorce. For there was a school of thought followed, following Rabbi Hillel, which was the popular school of thought, who interpreted the law of divorce. If a man finds an uncleanness in his wife, let him give her a writing of bill of divorcement. He interpreted that uncleanness to, if she put too much salt in his soup, grounds for divorce, salty soup again. And so they had liberalized the law of divorce. A man can put away his wife for just about any cause in which he just was displeased with her. It was almost as bad as it is today. Look how we liberalized, you know, you don't need any excuse now, just go to court and say we're incompatible.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혼의 과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랍비 힐렐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가 있었고 그들의 해석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불결한 것을 발견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쓰서 아내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만일 아내가 소금을 국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짠 국이 되어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하여 이혼법을 자유주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 법이 오늘날의

이혼법 과 비슷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주의로 흘렀는지. 이젠 변명할것도 없이 법정에 가서 안 맞아서 같이 못살겠다고만 하면 이혼이 됩니다.

So it was much that way in the day of Christ by the liberal interpreting of the law by the rabbis who followed the school of Hillel. And so Jesus, taking a more literal view of that law, and no doubt it was a running battle with Him, so He says, "Hey, not one little tittle of the law is going to fail, you know,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than one of this little marks in the Hebrew to fail." And then He sticks the knife in, this particular issue that they were asking Him about and, no doubt, arguing with Him about, He said,

*Whosoever puts away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and whosoever marries her that is put away from her husband commits adultery (16:18).*

그리스도의 시대에 힐렐학파를 따르는 랍비의 자유주의적인 율법 해석에 의한 방법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좀더 문자적인 관점을 취하셨으므로 말할것도 없이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라, 천지는 없어질 썩라도 율법은 일점 일획도 폐하지 않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 특별한 제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을때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18).*

I mean, He lays it out straight, hard, and just nails them. And then He goes right on and He said,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ich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fared sumptuously every day: and there was a certain beggar name Lazarus, which was laid at his gate, full of sores, desiring to be fed with the crumbs which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16:19-21).*

내 말은, 주께서 직통으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현대를 앞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16:19-21).*

So we have a very vast contrast of lifestyles. A rich man fairing sumptuously everyday, and there at his gate a poor beggar covered with sores, begging and seeking to eat the crumbs t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and dogs coming and licking his sores. Some have said that this is a parable. Jesus didn't say it was a parable. I do not think it was a parable. For in all of the parables never was a person named. In this story the person is named, Lazarus, the poor man. The rich man isn't named. Someone called him Divvies, but we don't know that.

여기에 생활양식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지만 대문밖에 있는 거지는 헨데로 덮여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것으로 배불리려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헨데를 훔더라. 어떤이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것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 in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16:22);*

Notice it didn't say the poor man was buried. In those days when the poor people died, they just throw them into the Valley of Tophet, into Gehenna. Into the valley just outside of Mount Zion, Valley of Hinnom, where they put the refuse from this city. And there was constant fires burning there in the Valley of Hinnom, and they would just cremate the bodies, throw them in the fires in the trash heap. They wouldn't bury the poor people. So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in hell, Hades.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16:22);*

가난한 사람이 장사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시체를 토벳 계곡 즉 게헨나에 던져 버립니다. 시온산의 바깥에 나가면 힌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며 이곳은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힌놈의 골짜기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며 쓰레기 더미에 시체를 던져 화장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 즉 지옥에 갔습니다.

*He lifted up his eyes, being in torment, and seeing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He cried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send Lazarus,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s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tormented in this flame.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the good things, and likewise Lazarus the evil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and you are tormented. And beside all thi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that is fixed: so that they which would pass over from here to you cannot; neither can they pass to us, that would come from there. Then he said, I pray thee therefore, father, that you would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five brothers; that he may testify to them, less they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16:23-28).*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16:23-28)

Now Jesus is teaching here concerning Hades, which is translated for the most part in the New Testament *hell*. A place tha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earth. When they asked Jesus for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es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So Jesus located it in the heart of the earth, because we are told that Jesus descended into hell when He died. But God had given Him the promise,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Peter said God fulfilled the promise and He did not leave His soul in hell, neither did He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but this same Jesus hath God raised from the dead. And Peter, in Acts chapter two, bear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 his message to the throne.

이제 예수께서는 음부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신약의 대부분이 음부를 지옥이라 번역 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을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때 지옥에 내려 가신다는것을 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찍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 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Later, Paul the apostle tells us in Ephesians 4, "He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is the same One who first of all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nd when He ascende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Peter tells us that He went down and preached to those souls that were in prison, who in one time were disobedient. So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Jesus here, prior to the death and burial of Jesus Christ and subsequent resurrection, Hades or hell, a place in the center of the earth, was divided into two compartments. In one compartment Abraham had charge of comforting those who came into that particular compartment, as the poor man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What a fitting person to be comforting

them. The father of those who believe. What was he comforting them with? The promise of God to send the Messiah to deliver them.

그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려고 내려 가셨으며 그 영들은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여기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후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지구의 중심부인 음부 또는 지옥은 두 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아브라함이 그 특별한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할 책임을 맡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In Hebrews chapter 11, as it talks about the faith of Abraham, it said these all died in faith. Abraham and Enoch and all of the rest of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ut seeing it afar off they embraced it, they held to it, and they claimed that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here; they were looking for a city which have foundation who's maker and builder is God.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 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잡았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나그네며 순례자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세우신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So Abraham was saying, “Hey, look, God is true to His word. He'll keep His promise. You're not gonna have to stay here forever or not, just don't worry about it. Just, you know, Lord is gonna do it. The Messiah is gonna come; He's gonna deliver us out of this place.” And one day into hell there came a burst of glory as Jesus came in and said, “Hey, I did it. It's finished; the price has been paid. You've been redeemed from your sinful state.” And He broke the bars of hell, and when He ascende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영원히 머물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것이며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 내실겁니다.” 어느날 주께서 음부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때 영광이 비쳤고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치렀어. 너희들은 너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빗장을 부수고 그가 승천 하실때 갇혔던 포로를 인도하셨습니다.

Part of the prophecy of Jesus Christ in Isaiah 61 is He would open the prison doors and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bound. That's exactly what He did. An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That's why Matthew's gospel records that afte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any of the bodies of the

saints where seen walking around the streets of Jerusalem. "Hey, what's Moses doing walking over there?" You know. "David, oh." Then Jesus ascended an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as He ascended into heaven. So that the one compartment of hell at that point was emptied.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일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 주리라 는것입니다. 그가 하신것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그가 포로된 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후에 또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거니는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모세가 저기 걸어 가면서 뭘하고 있지?" "오, 다윗 좀 보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 하실때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부의 한 방은 텅 비었습니다.

Now the other compartment in hell will also one day be emptied. It, as is described here by Jesus and who would know better than He, was a place where the rich man was in torment. He asked that Lazarus be sent to dip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his tongue. He was tormented in the flame. One day at the end of the thousand-year reign of Christ, death and Hades will give up the dead which are in them, and they will stand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of God, Revelation chapter 20. And whosoever's names are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ill be cast into Gehenna, this is the second death.

이제 음부의 다른 방도 텅 비는 날이 올것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예수께서 여기에 설명 하신대로 그 방은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간의 다스림이 끝나는 어느날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은자들을 내어 주매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자들은 불못 (게헤나) 에 던지워 지게 될것이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So hell...someone says, "Well, hell isn't eternal." That's true; it will disgorge itself of its inhabitants at the end of the thousand-year reign of Christ. It is Gehenna, which Jesus described as being a place of outer darkness, where there is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re there worm dieth not, neither is the fire quenched. And in Revelation concerning Gehenna it says,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s from the ages throughout the ages" (Revelation 14:11). Now you interpret that however you want, but don't ask me to modify it. Because God says if any man takes away from the words of this book, that is modifies them, his name will be taken out of the Book of Life. You do with it what you want. I'm not gonna to modify it; I'm just gonna leave it be. Let the Word of God speak and let it be. You say, "Oh, that's horrible." I agree. That's why I have no intention of going there.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옥은 영원한것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1,000 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날때 그 안에 있는 모든것을 쏟아 낼것입니다. 그것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묘사된 게헤나 (Gehenna) 입니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게헤나 (Gehenna) 에 관하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11). 그것을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을 변경시키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는 변경시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원하는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버려 둥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오, 그것 참 나쁘네.” 나도 동의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Common fallacy is often expressed in the question, “How can a God of love consign a man to eternal punishment, send a man to hell?” The question is a fallacy because, first of all,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has never sent one man to hell nor will he ever send one man to hell. In fact,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has done everything short of violating man's free will to keep him out of hell.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sent His Son to die on the cross so men wouldn't have to go to hell. Jesus ca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ich are lost and God has done everything short of violating man's free moral agency. So man, by his own choice, goes to hell. Never sent there by God. So rather than saying, “How can a God of love send a man to hell?” just say, “How can a man be so stupid as to chose to go to hell when God has made all of the provisions to keep him from it?” Because that's what the truth actually is.

통상적인 그릇된 생각을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고통을 받게 지옥에 보낼수 있어요?” 그 질문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적도 없고 결코 보내지도 아니할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든것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여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어찌 인간이 지옥에 가는것을 선택할만큼 미련할꼬?” 라고 말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진리입니다.

Now, couple of more things that we notice about Hades: there's no transferr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Those that are on this side, if they want cannot come over there, Abraham said to him. Neither can those that are over there come over here. The boundaries are set; there's no transferring back and forth. There is consciousness. There is remembrance. “Son, remember you in your lifetime lived in luxury. You had the good thing, Lazarus the evil.” Remember, he could remember, he remembered his brothers. “If

he can't come and comfort me a bit, please send him back to my house, my five brothers I don't want them to come to this place.”

음부에 관하여 주목해야할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옮길수 없습니다. 이 편에 있으며 저 편으로 갈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에 갈수도 없고 저편에서 이편으로 올수도 없다. 경계가 세워져 있으며 오고 가는것이 없습니다. 의식도 있고 기억도 합니다. “애야, 너는 살았을때 호화롭게 산것을 기억하라. 너는 좋은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가 기억할수 있단말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 했습니다. “그가 올수도 없고 조금도 나를 위로해줄수 없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He said, No: they don't listen to that but they will listen if someone comes back from the dead. Abraham said, If they won't listen to that, they won't listen even if someone comes back from the dead (16:29-31).*

Now to me it is very interesting. Jesus is talking, remember, to the Pharisees, and there was a man named Lazarus who lived in the city of Bethany. And he was very sick. And his sisters sent an urgent message to Jesus who was at the Jordan River and it said, “Come quickly. The one you love is sick.” And Jesus remained at the Jordan River with his disciples for two days, and then He said, “Come, let us journey to visit Lazarus.” And as they were journeying they were talking about Lazarus' illness, and Jesus said, “Well, he's sleeping.” And the disciples said, “Oh, that's a good sign, if he can sleep he's probably getting better.” And Jesus said, “No, you don't understand me, he's dead.” And so they said, “Well, let's go, you know, so we can die with him.”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6:29-31).*

그게 내게는 참 흥미있습니다. 기억 하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하신다는것을.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병들었고 그의 누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속히 오십시요. 당신이 사랑하는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후 “가자, 나사로를 방문하러 가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행중에 나사로의 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 그것 잘되었군요. 그가 자면 나아 지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그가 죽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가자” 고 말했습니다.

Well, as He was coming into tow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finally arriving at the village. She ran out and said,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n't have died. Where were you? What took you so long? Why weren't you around when we needed you?" Jesus said, "Martha, your brother is going to live again." "Oh yes, Lord, I know the last day the great resurrection." Jesus said, "No, Martha,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he live and believeth in Me, he will never die. Don't you believe this Martha?" Heavy, isn't it? Pretty radical.

주께서 동리로 들어 오실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에 계셨나이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실때 왜 함께 계시지 아니 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주께서 "아니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 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말씀 입니다.

But you see what He did, as He always does, divides men into two categories,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don't. I mean, He makes a radical claim and then He divides you. He says, "Psst..." sets the knife right down and you're in one side or the other; you either believe or don't. You either have hope of eternal life or you have no hope of life. She said,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promised Messiah of God." And so then they came to the house where they were all weeping, and Mary said,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have not had died."

그러나 주께서 하신것을 보십시오. 항상 주께서 하시는것 처럼 사람들을 두 부류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눕니다. 내가 하는 말은 주께서 놀라운 주장을 하신 후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주께서 "쉬..." 하신후 칼을 내려 놓고 이 쪽이나? 아니면, 저 쪽이나? 믿느냐? 혹은 안 믿느냐? 를 갈라 놓습니다. 당신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졌거나 아니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하신 아들임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사람들이 울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Jesus said, "Where did you bury him?" "Come, we'll show you the place," and they got to the place the tomb and Jesus said, "Roll the stone back." And they said, "Oh Lord, can't do that; he's smells by now. He's been in there for four days, the body is decaying." He said, "Roll the stone back." And then He cried, "Lazarus, come forth." He didn't just say, "Come forth," or the whole graveyard would have emptied. You've got to be careful

when you got that kind of power. And Lazarus came hopping out. All bound in his grave clothes. And Jesus said, "Loose him and let him go." And they went back home and they prepared a dinner and Jesus was sitting at dinner. And the Pharisees said, "We better kill him." Maybe they were some of this rich man's brothers.

예수께서 물으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오소서, 보여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무덤이 있는곳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이 대답하되 "오, 주여,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한지 벌써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나이다."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고 하신후 그는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그냥 "나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디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모든 무덤들이 텅 비었을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꺽충꺽충 뛰어 나오는데 온 몸이 수건에 싸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만찬 준비를하고 예수께서 만찬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없애자" 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죽은 부자의 형제들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Abraham was right. They will not believe even if they see one who has come back from the dead. Lazarus came back from the dead. It did not make believers out of the Pharisees. Oh, there were many who, when they saw him, believed. But if you are predisposed to unbelief, all of the proof in the world isn't going to change you. You see, believing in Jesus is a matter of choice. And if you've chosen not to believe, I don't care how much proof or evidence is offered to you, you've chosen not to believe and you won't believe.

아브라함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아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믿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믿는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기울어져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증거로도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소용 없고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믿지 않을것입니다.

Believing is matter of choice, I choose to believe in Jesus Christ. I choose to believe that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by believing in Him I expect never to die. "Oh, oh," you say, "I knew you were weird." Never to die from a scriptural definition. I'm gonna to move out of this old tent into a beautiful new house that the Lord has been preparing for me. He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And I'm going to prepare on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one for you, I'm going to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2-3).

믿는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미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를 믿음으로 절대로 죽지않을것을 기대합니다. "오,오 당신이 이상한 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결코

죽지않습니다. 나는 이 낡은 장막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집으로 이사할뿐 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For we know when this earthly tent, our body, is dissolved, but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 i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move out, not to be an un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and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I would rather be absent from this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II Corinthians 5:1-8). So some day if you read in the paper, “Chuck Smith died,” don't believe it. Poor reporting. If they're gonna to be accurate they're gonna to have to write, “Chuck Smith moved out of an old worn-out holy tent into a beautiful new mansion.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후 5:1-8). 어느날 신문에 “척 스미스가 죽었다” 는 기사를 읽거든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들이 맞게 보도하려면 바르게 쓰야 되는데 “척 스미스가 낡은 장막을 떠나 아름다운 새 맨션으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쓰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것이요 손으로 지은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것입니다.

So here Jesus is telling them a little bit about what's going on. And this is interesting to me as Abraham responds, if they will not believe, if they chose not to believe the law and the prophets, they have predisposition themselves not to believe, they won't believe even if they see a miracle of someone coming back from the dead. They'll say, “Oh well, he must have swoon, he really wasn't dead, and isn't it fortunate that he revived.”

여기에 예수께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믿지 않기로 기울어져 있기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것입니다. 그들은 “오, 그 사람이 기절했었던것이 분명해, 쯤짜로 죽었던것이 아니야. 다행히도 회복된것이지” 라고 말할것입니다.

## Chapter 17

Now He turns again to His disciples.

*Then said he unto his disciples, It is impossible but that offenses will come*  
(17:1):

You cannot help if you're living in this world, you're going to have offenses come your way.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will seek to put stumbling stones in your path. And that's what the word *offense* here; it's a stone of stumbling, a scandalon. It's impossible to live your life without having these things happen. These offenses, as people challenge your faith, as people ridicule you for your walk with Jesus Christ, it's gonna happen.

이제 주께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향하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17:1):

당신이 세상에 사는동안에는 실족케하는 일이 생기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통로에 거침돌을 놓으려고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실족케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게하는 돌입니다. 헬라어로 스캔달론 (scandalon) 입니다. 이러한일이 없이 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앙에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것을 사람들이 조롱할때 이러한 실족케 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but woe unto him, through whom they come!* (17:1)

You can't live your life unscathed. You can't live your life without having stumbling stones placed in your path, but woe to the person who put the stumbling stone there.

*It was better for him that a mill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and he was cast into the sea, than he should offend one of these little ones* (17:2).

It is a very serious thing to tamper with someone's faith in Jesus Christ. To seek to put a stumbling stone or a block in their faith of Jesus Christ.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7:1)

흠 없는 삶을 살수는 없습니다. 거침들로 인해 실족치 않을수는 없지만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뎐대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17:2).

어떤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 수단으로 간섭하는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거침 돌을 놓거나 막으려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Jesus said much the same thing at another occasion in which He took a little child and was using a child for an example. And those that would try to rob a child of that pure, simplistic faith in Jesus. Quite often these scholarly theologians accuse me of preaching a simplistic gospel. Thank God for the charge, I hope it's true. I hope that I'll always preach a simplistic gospel. Because to me, the problem is that man has tried to make it so complex when God has made the believing in Jesus so simple that even a child can believe and be saved. And Jesus said unless you become as a little child you won't be able to come in to the kingdom of Heaven. That's pretty simplistic and I hope to keep it that way.

예수께서 다른 경우에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그때 주님이 어린 아이를 취하여 어린 아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빈번히 이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송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 를 믿는것이 너무나 간단하여 심지어 어린 아이 까지라도 믿어서 구원 받을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아주 간단하며 그렇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I love the spunk that Jesus has. He's gonna take one of these big ole millstones, and I've seen them the size of the pulpit here, tie it around the guy's neck and toss him in the Sea of Galilee. Better for him if that had happened to him than he should offend one of the little ones.

*So take heed to yourselves (17:3):*

나는 예수께서 가지신 용기를 좋아합니다. 주께서 큰 연자 멧돌을 취하시려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강대상 만큼이나 큰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목에 걸어 갈릴리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 중의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멧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진우는것이 나으리라.

Be careful that you're not a stumbling stone. Be careful that you don't stumble your brother. Take heed to yourself if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thee. Rebuke him. There is a place for rebuke. Romaine has his place in the body. And for you who are listening on tape, Romaine is not my wife. We had some people come to Calvary a while back looking

for my wife; they thought her name was Romaine, because of the reference that I have made to Romaine from time to time. Just keep the record clear.

*If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you, rebuke him (17:3);*

거침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를 실족 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형제가 당신에게 범죄하거든 당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를 책망하십시오. 책망해야할때가 있습니다. 로메인은 교회에서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프나 음성으로 듣는분들이여, 로메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우리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제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은 제 아내의 이름이 로메인 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로메인을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입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we should reprove, that we should rebuke.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So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you, rebuke him, and say, "Hey, that isn't right, you shouldn't have done that." "Oh, I'm sorry. Forgive me?" "Yes, I forgive you." Should be just like that.

*if he repents, forgive him (17:3).*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과실을 저질렀거든 그를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보게,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 "그래, 용서한다"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Now it doesn't say anything if he doesn't repent, does it? Do you have to forgive him if he doesn't repent? I don't think so. You say, "Oop, oh wait a minute." Oh, let me ask you a question. Does God forgive a man without repentance? I don't know of a single instance where God forgave a person without repentance. In fact, Jesus said unless you repent you're gonna perish. So repentance is necessary for forgiveness. It's an absolute necessary qualification for forgiveness. If I'm to be forgiven, I must repent. God will not forgive you if you don't repent, therefore, God does not require that you forgive outside of repentance. But if they do repent, then you...it's...the ball is in your park and you've got to forgive.

그가 회개한다는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어마, 잠깐만 기다려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주는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 다음은 당신의 책임이고 용서해 주어야합니다.



*And even if he trespasses against you seven times in the same day, and seven times in the same day he turns to you again, and says, I repent; thou shalt forgive him (17:4).*

Thank you, Lord, I needed that. That's so hard, isn't it? You would be prone to think that the person wasn't sincere. Just taking advantage of you. If seven times he does some rotten deed and then quickly says, "Oh, I repent, I repent," and yet, if he repents seven times the same day, I'm to forgive him. I can't do that unless the Lord helps me. And the apostles, no doubt, felt the same thing, because when Jesus said this, they said, "Oh,"

*Lord, increase our faith (17:5).*

Help me, Lord. Can't handle that one.

*And so the Lord said,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17:6),*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7:4).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곱번 못된 짓을 하고 재빠르게 "오, 회개 합니다, 회개 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구나 같은 날 일곱번 회개하면, 나는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도들도 똑 같은 심정이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17:5).*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면 (17:6),*

Now I think that we oftentimes make a mistake in this, thinking of faith in quantity and we think oh a mustard seed is so tiny, just a little tiny tiny bit of faith. And we think of it in quantity or in size. But He didn't say if you had as much faith as the size of a grain of mustard seed, did He? He isn't referring to size at all,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I didn't know mustard seeds had faith. But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ou might say to this sycamine tree (17:6),*

Or mulberry tree, whatever it might have been.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빈번히 오해를 하는데,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으며 믿음도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양이나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 알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면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전혀 크기에 관계치 않으시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에 믿음이 있는줄은 몰랐네 라고 말할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17:6),

뽕 나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Be thou plucked up by the root, and be thou planted in the sea; and it would obey you (17:6).*

Now, whenever I read something like that, I wonder, "Lord, how much faith do I have?" But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Now in another place He said, "If your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ou can say to yon mountain be thou removed into the sea and it would happen."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7:6).

그러한것을 읽을 때마다 나는 궁금해서 "주여, 내게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곳에 보면 주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Let me suggest to you that a mustard seed is quite small. And when it is planted in the ground and covered with dirt and there germinates. As that mustard plant begins to grow from the little seed, it begins to move, in a sense, especially to its size the mountains of dirt above it that it might break forth and grow up into a mustard bush. So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There is that life principle there that can move mountains. Another place the disciples said, "Lord, increase our faith," and perhaps He's just showing them how little they really do have, and if this be a standard then I must take my place with them. I do wish that the Lord would increase my faith.

겨자씨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싹이 납니다. 그 겨자는 그 작은 씨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산 특히 그것 올라서 자라기위해 땅의 일부를 움직여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겨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인것입니다. 거기에 산을 움직이는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했다니 주께서 그들이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라면 나는 그들의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주께서 내게도 믿음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ow this business of faith, though, becomes a very tough issue, because so many times we find ourselves trying to generate faith. Have you ever been in the position of trying to generate faith? You know, you go trying to get the turbines turning and get things rolling. But you can't generate faith. Now a lot of times we are made to feel very guilty..."Well, brother,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Surely you wouldn't be in the mess that you're in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You wouldn't be as sick as you are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Now, if at any time a person needs comfort and help is when they're sick and they're weak and they're down. And it's no help to tell a person, "Well,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you wouldn't be in this condition, brother." That's no help at all. You're as bad as those guys who came to comfort Job. You're kicking a guy when he's down.

이 믿음이라는 과제는 아주 어려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힘쓰는적이 있습니까? 한번 엔진을 틀면 계속 돌아가야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지은것 같이 느낄때가 많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이 현재 처해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을게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겁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때는 병들고 연약하고 절망중에 있을때입니다. "형제여, 만일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것을" 이라고 말하는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것은 도움도 안될뿐더러 옳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나 다름이 없이 나쁩니다. 그것은 실마한 사람을 발길로 차는것과 똑 같습니다.

I cannot generate faith; I cannot produce faith. Faith is a gift of God. It is listed in I Corinthians chapter 12 as one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Now it is glorious when God plants that faith in your heart, but if He doesn't I don't know what you can do about it. So I think it's proper with the disciples just say, "Lord, increase my faith."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실때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신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제게 믿음을 더 하소서" 라고 할것입니다.

Now the Lord is talking to them about what it is to be a servant. You're the servant of the Lord. He's called these disciples to be a servant. And He's talking to them a little about what a servant...what it entails being a servant. Let's leave it there.

*But which of you, who has a servant plowing or feeding your cattle, will say to him by and by, when he's come in from the field, Go and sit down and eat your dinner? But will you not rather say unto him, Prepare my supper, gird yourself, and serve me, until I have eaten and drunken; and afterward you can eat and drink?*

*Now does he thank that servant because he did those things which were commanded him? (17:7-9)*

이제 주님께서 섬기는자가 되는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무엇이며 종이 되는데 필요한것을 말씀 하십니다. 그것은 거기에 남겨 둡시다.

너희 중에 뉘게 밥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17:7-9).

And Jesus said, "No way."

*I trow not.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have done all those things which are commanded you, say, We are unprofitable servants: we haven't done any more than what was our duty to do (17:9-10).*

My attitude after I come in from serving the Lord, and the Lord gives me another task to do, and I'm so tired I feel oh I can't move. But I go to the hospital, I make the call, I pray for them and encourage them. And I'm about fall asleep driving home. Catch myself a couple of times almost running off the road. And I'm trudging upstairs to bed and, "Oh, Lord, You ought to really lay a heavy one on me now. Look how good I am, look what I've done for You. Surely, Lord, You ought to bless me now. I'm so good." Lord says, "No, no." Say, I'm an unprofitable servant. I've only done that which was my duty to do. I'm a servant. What is my duty? To obey my master. Not to be looking for glory, not to be looking for thanks, not to be looking for pats on the back.

예수께서 "절대로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 (17:9-10).

주님을 수종드는 일을 끝내고 들어 온후에 주께서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 하실때 나의 태도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더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가서 전화걸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운전해 올때엔 쓰러져 잠정도입니다. 한 두어 번은 차가 탈주할뻔 했습니다. 이층으로 터벅터벅 걸어 침대에 가서 "오, 주님, 내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시네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 또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보세요. 참으로, 주님, 이제 축복해 주셔야지요. 나는 훌륭한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엇이 나의 의무입니까? 내 주를 순종하는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으려 하는것도 아니요 내 등을 두들기며 칭찬하는것을 들으려는것도 아닙니다.

They tell me that I'm a difficult one to work for. Because I don't pat people on the back. Now I know that's difficult in marriage, and God help me, I'm trying. I know it is a failing of mine, because my wife isn't my servant. She's my wife. And it is a great failing of mine not to give her more recognition for those good traits, those beautiful traits that she has. I just, you know, expect it and, but I don't give her recognition and don't say, "Oh, sweetheart, that was the most delicious dinner. You seasoned that roast just perfectly, oh that was good." I just don't say those things. I wish I could, I wish I did, but I don't. But if she burns the carrots, I say, "Oh you burned the carrots, huh?" No one makes it so stupid that we can't learn, but yet, as a position of a servant I shouldn't really be looking for these little perks. I've only done what is my duty to do.

사람들은 내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등을 두들기면서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운것을 압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도 도우시기를 빕니다. 그 부분이 나의 실패하는 부분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나의 큰 실패는 내 아내에게 큰 장점이 있는것을 알아주지 못한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걸 기대하지만 아는채도 아니하고 말도 "오, 여보, 그거 정말 맛있는 저녁이요. 간을 완벽하게 잘했어. 그것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안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그러나 당근을 태워 쓸때엔 오, 당근을 태웠네"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배울수 없을 정도로 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러한 작은 칭찬을 받으려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Now it came to pass, as he was on his way to Jerusalem, that he passed through the midst of Samaria and Galilee. And as he entered into a certain village, there met him ten men that were lepers, which stood a far off (17:11-12):*

Which, of course, was the law of the land. If you were a leper you had to cry, "Unclean," and could not allow anyone to approach you.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7:11-12).

물론, 그것은 그 땅의 법이었습니다. 만일 문둥이라면 "불결합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합니다.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17:13),*

They cried, they yelled.

*they said,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And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your way and show yourselves unto the priests. And it came to pass,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7:13-14).*

Again, I like this because it shows us the variety with which Jesus worked His works among men. He was never in a pattern. He didn't do things by set patterns because He didn't want us to get set into rituals or into patterns. He wanted us to just be free to the working of God in different ways. In another case a leper came and said,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And Jesus touched him and said, "I will. Be thou clean.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immediately his leprosy left him.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7:13),

그들은 부르짖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7:13-14).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방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우리가 의식이나 모형에 따라 행하는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경우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Now here they stood afar off.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Jesus touching them. They just cried out and Jesus called back and said,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Now this was the necessary thing when a...this is the law of the leper and the day of his cleansing, Leviticus 13. He is to go to the priest and he's to show himself to the priest to examine him. If he finds no new skin blotches and so forth, he puts him in the house and he sits there for seven days. Comes back again before the priest, and he looks over him again, and there's no new eruptions or blotches then the man is proclaimed cleaned by the priest. And he goes out and gets a couple of doves and he brings one in. The priest kills the dove, pours the blood in water basin, he takes the other dove and dips it in this bloody water and turns it free. And the bloody water dove flies away with the blood sprinkling down and the guy is cleansed of his leprosy and he's able to go back into the community. So that was the first step back to restoration,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그들이 멀리 서 있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으로 만지시는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렀고 예수께서 뒤를 돌아 보시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들에 관한 법으로 깨끗함을 얻는날에 행하여야할것으로 레위기 13장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 검사하게 해야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에게서 새로운 부스럼이나 종기를 발견할수 없으면 그 사람을 집안에서 칠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고 새로 생긴 부스럼이나 발진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는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와서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잡아 물 그릇에 피를 흘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마리의 비둘기는 그것을 피에 찍어 날려 보냅니다. 피 흘린 물을 적신 비둘기는 피를 뿌리면서 날아가면 그 사람은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얻었고 사회에 복귀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첫 단계이며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것입니다.

So by faith, as they started towards the priest. Now doesn't say they were cleansed immediately, but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They started out in faith towards the priest, and as they were going, some guy said, "Look, wow, it's gone, unreal."

*And one of them, returned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he turned back, and with a loud voice he glorified God. And he fell down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and he was a Samaritan (17:15-16).*

Now the Jews had no dealings with a Samaritan nor the Samaritans with the Jews. But misery had made common brothers of these men. But it's significant that out of the ten only one gave thanks.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당장 깨끗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을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가기 시작하여 가는중에 한사람이 "보라, 와!, 사라졌어, 믿어 지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15-16).*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상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이 사람들을 공동된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And Jesus said unto him, Were there not ten who were cleansed? where are the nine? (17:17)*

This indicates that the Lord is looking for thanks when He has worked in a person's life. He's looking for that response, and He misses it when He is...when it is not there. Weren't there ten that were cleansed? Where are the nine? And He said unto him,

*There are not found that returned to give glory to God, save this stranger. And he said to him, Arise,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17:18-19).*

He received more than just the healing of his leprosy. He received salvation.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17).

이것은 주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일 하실때 감사를 표현하는것을 기대하신다는것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 하십니다. 반응이 없을때 주께서는 서운하게 여기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께서 그에 말씀하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18-19).*

그는 문둥병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And when he was demanded of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should come (17:20),*

He's heading now towards Jerusalem. When's the kingdom of God gonna come? When He gets to Jerusalem? You gonna do it?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observation (17:20):*

The word there in the Greek is a word that means with outward manifestation or an outward show. You're not gonna see an outward display of the kingdom at this time.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17:20),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 일까요? 주님,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17:20):

헬라어로 그 단어는 외향으로 나타나는것 또는 겉에서 보이는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외향적으로 볼수 없느니라.

*Neither shall they say, Lo here! Or, lo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entos you, among you] (17:21).*

“Within you” is a poor translation here. It's really,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the kingdom of God was in the Pharisees.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life of every man who has submitted to the King, or to God as King. But with Jesus, there the kingdom of God was among them. He was a demonstration of a man submitted to the authority of God.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entos) 있느니라 (17:21).



“너희 안에” 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모든 믿는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And he said unto his disciples, The days will come, when you sha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the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And they shall say unto you, Look it's here; look it's there: now don't go after them, or follow them. For as the lightning, that lighteneth out of the one part of the heaven, shines to another part under the heaven; so shall the Son of man be in his day (17:22-24).*

Oh,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it's over here, let's go over and see the kingdom, it came secretly. No, it's gonna be like lightning, everybody is gonna see it when it happens.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 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17:22-24).

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가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리에 임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번개가 치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때 모두가 보게 됩니다.

But before He comes in this glory,

*He first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And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also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For they were eating, they were drinking, they married wives, they were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into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Likewise also as it was in the days of Lot; they did eat, they drank, they bought, they sold, they planted, they built; but the same day that Lot went out of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17:25-29).*

그러나 그가 영광중에 오시기 전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17:25-29).

What is Jesus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when it comes, it'll be as in the days of Noah. It will be in the days of Lot. People will be going on with business as usual,

eating, drinking, marrying wives, buying, selling, planting, building; business as usual. Now, verse 29 I feel is significant, "But the same day that Lot went out of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I do not believe that God's judgment will come upon the earth until the church is taken out. I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is going to face the wrath of God, the Great Judgment period mentioned in the Bible, or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But I believe that Lot is a classic sign of God's ability to deliver the righteous while reserving the ungodly for the day of judgment as Peter tells us in his second epistle.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룻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업을 할 것이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통상 하는대로 할 것입니다. 29절은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 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심판이 임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에 있을 대 환란기간 즉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룻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것 처럼 심판의 날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예비하시는 동안 의로운 자를 구원 하실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규범적인 표시입니다.

*Even thus shall it be in a day that the Son of man is revealed. In that day, he which shall be upon the housetop, and his stuff in the house, let him not come down to take it away: and he that is in the field, let him likewise not return back. For remember Lot's wife (17:30-32).*

Who, of course, in turning back turned to a pillar of salt. Get out of there, escape.

*Whosoever shall seek to save his life shall lose it;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shall preserve it. I tell you, in that night there'll be two in one bed; the one will be taken, the other will be left. Two shall be grinding together; the one shall be taken, the other left. Two shall be in the field; one shall be taken, the other left. And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Where, Lord? And he said unto them, Whereso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17:33-37).*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처를 생각하라 (17:30-32).

누가 뒤로 돌아보다가 조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피 하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7:33-37).

Now this last portion is difficult of interpretation. And there are two basic interpretations. There are those who interpret this as the person who is taken is the one in, who is in trouble, because he is taken to the judgment. One is taken, where Lord? Wher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And so they say they are taken to be put into the great battle of Armageddon where the birds are going to come and feast upon the body of the people.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새들이 와서 사람의 시체로 잔치를 하는 아마게돈 대 전쟁에 가도록 데려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One interpretation.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is actually is a reference to the rapture of the church. Taken up to escape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So you can see that the two interpretations are exactly opposite. For in the second interpretation the one who is taken is blessed, because he won't have to be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problem with the first interpretation is eagles are not a bird of prey, that is, upon the human bodies. They do prey upon livestock, live animals.

그것이 한가지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가 대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 두 해석이 정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해석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 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해석의 문제점은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맹금(사람을 잡아 먹는 새)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먹이는 살아 있는 가축이나 산 짐승들입니다.

But they are not as the vultures who eat human flesh. They do not eat the carcasses of people. So to interpret the aetos, which is eagles, as vultures is wrong, but yet, those who make the first interpretation are always translating aetos, as vultures. But that is not a true translation of the Greek aetos, which is eagles. There is another word for the vultures that feed upon the flesh of men at the great battle of Armageddon. What is being referred to wher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그러나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콘도르 같은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인 “에오토 (Aeto)” 를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로 해석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에오토 (Aeto)” 를 콘도르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에오토 (Aeto)” 의 참된 해석이 아니며, 그것은 독수리입니다. 아마게돈의 대 전쟁에서

사람의 시체를 먹일 콘도르 종류의새에 대한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는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There are those who see that as the body of Jesus Christ, wherever the body of Christ is there will the eagles, His victorious saints, be gathered together. And so you have two interpretations. You have a choice between the two. They are diametrically opposed. Both can't be right, and when you get into a place like that I just find that it's probably best to file it away and say, "Well, I'll just wait for further information."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독수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중에하나를 선택할수있습니다. 두 해석은 서로 정 반대가 됩니다. 두개가 다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일때 그것을 파일에 찰하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때 까지 기다리자" 라고 합니다.

Shall we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a lamp unto our feet, a light into our path to guide us as we walk with Thee. And Lord, we pray that we might walk in the light of Thy truth, the path illumined by Your Holy Spirit. Thank You, Lord, for Your truth that has set us free. Bless now, Lord, and may we grow in grace and in our knowledge of You. And Lord, we would with Your disciples pray, increase our faith. Work in our lives, Lord. In Jesus' name. Amen.

기도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행할때 우리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하는 당신의 진리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요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한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bless you. We praise the Lord for His goodness to us. The opportunity of just growing in our walk and in our fellowship. And may you be enriched this week as the love of Christ works in your life and works through your life. And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생활에서 또 생활을 통하여 역사할때 주 안에서 행함과 그 분과의 교제에서 자라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